

# 금맥 다변화... 진정한 '스포츠 강국' 반열에

### ■ 한국 금 13... 역대 최다 기록 달성



## 수영 등 기초 스포츠 가능성 확인 야구, 남자 구기종목 사상 첫 금 역도·배드민턴 '신 효자종목'으로

한국 선수단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체육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열린 2008년 베이징 대회를 앞두고 한국의 목표는 금메달 10개를 따 톱10을 수상 하겠다는 '10-10' 전략. 한국은 앞서 지난 22일 태권도 여자 67kg급에 출전한 황경선이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10-10'을 사실상 달성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은 한국은 23일 야구가 쿠바를 결승에서 꺾고 사상 처음 우승하는 '그라운드 기적'을 일으키고 태권도도 차동민이 남자 80kg급 금메달로 네 종목 싸움이에 화룡점정을 찍어 13개로 종전 최다였던 12개 벽을 뛰어 넘었다. 100년을 넘은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쓰는 순간이었다.

한국 수영사의 새 페이지를 장식한 '마린 보이' 박태환과 유도의 '작은 거인' 최민호, 역도의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 사재혁, 사격의 명사수 진중오, 배드민턴의 '황금 콧비' 이용대-이효정, 양궁 남녀 단체전의 신궁 3총사, 태권전사 손태진, 임수정, 황경선, 차동민 그리고 야구대표팀이 합작한 작품이었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출전했던 1948년 런던 대회에서 역도 미들급의 김성집과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안이 나란히 동메달을 따면서 올림픽 메달 레

스가 시작됐다. 금메달이 나온 건 그로부터 28년이 흐른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레슬링 남자 자유형 페더급에 나선 양정모가 마침내 한국의 금메달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했다. 한국의 금빛 퍼레이드가 본격 시작된 건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동서 냉전 여파로 1980년 모스크바 대회에 불참했던 한국은 LA 대회에서 '왕발' 하영주와 안병근이 유도에서 두 차례 금맥을 뚫었다. 또 여자 양궁 개인종합에선 '신궁' 서향순이 금빛 과녁을 맞춰 한국 양궁 전성기를 열어 쫓았다. 복싱 신준섭과 레슬링 김원기, 유인탁도 한국의 금메달 6개 사냥에 힘을 보탤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역대 최고 성

적인 종합 4위에 올랐다. 중국과 일본을 밀쳐 감지 따돌린 쾌거였다. 서울올림픽 성공 여세를 몰아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도 금메달 12개로 종합 7위를 했고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선 금메달 7개(종합 10위)로 세계 스포츠 10강 자리를 지켰다. 2000년 시드니 대회 때는 금메달 8개를 따지만 종합 12위로 밀리면서 톱10 수성에 실패했다. 또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선 종합 9위(금메달 9개)로 세계 10위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일본(금메달 16개)에 뒤져 1988년부터 유지해왔던 아시아 2인자 자리를 넘겨줬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의 선전으로 금메달 13개를 따내 금메달 9개에 머문 일본을 누르고 아시아 2위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 ① 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마 최강자인 쿠바를 3-2로 꺾고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야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②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
- ③ 사격 10m 공기 권총 은메달에 이어 50m에서 금메달을 딴 진중오.
- ④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서 금빛 호흡을 자랑한 이용대와 이효정.
- ⑤ 여자 역도 75kg 초과급에서 다섯번의 세계신기록을 세운 장미란.
- ⑥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6연패의 주인공 주현정, 윤옥희, 박성현.
- ⑦ 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 3연패를 이룬 임동현·박경도·이창환.
- ⑧ 치밀한 작전으로 금 바벨을 들어올린 남자 역도 77kg급의 사재혁.
- ⑨ 부상 투혼으로 금메달을 딴 태권도 67kg급의 황경선.
- ⑩ 미국의 강호 마크 로페즈를 누르고 금메달을 딴 태권도 남자 68kg급의 손태진.
- ⑪ 한판승 행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유도 60kg급의 최민호.
- ⑫ 태권도 금메달 싸움을 마무리 지은 남자 80kg이상급의 차동민.
- ⑬ 여자 57kg급의 임수정은 태권도 첫 주자로 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장흥 아들이 드디어 해냈다” 주민들 뺨과리 치며 어깨춤 덩실



### ■ 태권도 금 차동민 고향 수동마을

장흥출신의 차동민(22)이 태권도 80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따내자 친수의 고향인 장흥 관산읍 수동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차동민은 지난 23일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니콜라이디스와의 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5-4로 태권도 싸움을 마무리 짓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일찌감치 마을 노인정에 모여 장구와 풍과리를 동원해 열띤 응원전을 펼친 주민 50여명은 경기 종료직전 차동민이 기습적인 발공격으로 금메달을 확정짓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를 축하했다. <사진>

주민들과 어울려 어깨춤을 추던 차 선수의 할머니 김금주(78)씨는 “돌아가신 동민이 할아버지가 벗짚을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던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며 “우리 동민이가 너무 자랑다”고 말했다.

경기 종료까지 두 손을 모으고 경기를 지켜본 큰아버지 차병수(61)씨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세 체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 행여나 동민이가 금메달을 못 따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동민이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 메달 리스트 24명 병역 면제 받는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건 24명의 병역 미필 남자 선수들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24일 “한국 남자 메달리스트 중 체육요원 편입 대상자는 모두 24명”이라며 “이들은 각 소속 협회를 통해 체육분야 공익요원 편입원을 제출하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 또는 코치로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금빛 발차기로 태권도 남자 80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차동민 선수를 비롯한 24명의 남자 메달리스트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4주간의 기간을 제외하고 기존의 소속 팀에서 선수 신분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수영 사상 최초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이미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 병역 특례 혜택을 얻은 바 있다. 병무청과 대한체육회 등이 밝힌 이날 현재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메달리스트 중 병역 혜택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재범 왕기춘(이상 유도) ▲임동현(양궁) ▲사재혁(역도) ▲이용대 이재진 황지만(이상 배드민턴) ▲유원철(체조) ▲손태진 차동민(이상 태권도) ▲강민호 고영민 권혁 김광현 김현진 류현진 송승준 윤석민 이대호 이용규 이택근 장원삼 정근우 한기주(이상 야구) /연합뉴스

#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1. 모집인원: 200명 (남자 100명, 여자 100명)

2. 모집대상: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 지원자격: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4. 지원방법: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5. 지원처: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